

하루를 시작하며



김연 시인

기억의 처형은 환각을 낳고/ 환한 빛 세어 나오는/ 이곳은 따뜻한 지옥이구나 마음의 잔가지/ 불쏘시개 삼아 던져 놓고/ 없는 당신에게 없는 길을 묻는다. -계간 '창작21' 2020 봄호 김연 '샤면에 기대' 중-

샤면에 기대

이번 흐르는 은하수에 그날의 위안을 받는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고된 여행을 하는가, 라는 물음을 수없이 던지지만 돌아와서 가장 잔상이 오래 남는 곳 역시 몽골이었다. 두 번째 몽골여행은 칭기즈칸의 탄생지이자 어린 시절을 보낸 동부로 향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흘러가는 구름그림자가 전부인 대자연 속에서 꼬박 3일을 쉴 수도 못하고 달려 도착한 달달. 나무로 지어진 캠프를 발견하고 드디어 쉴 수 있다는 반가운 마음에 짐부터 풀었다. 개운하게 씻고 오랜만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로 지나온 길을 더듬고 있었다. 이윽고 짙은 어둠이 깔리고 하나 둘 별이 반짝일 무렵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었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큰 불을 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 물어보니 그날 외지인인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었다는 것이었다. 그 가족은 일종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적잖이 당혹스러우면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에 심장이 뛰었다. 몽골은 샤면의 본산이기도 하다. 예부터 몽골 부족은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불려왔다. 그들에게 '하늘'은 주로 지상을 떠난 '조상'이다. 지역이나 부족에 따라 신의 종류나 의식의 차이는 있으나 하늘, 땅, 물 등의 자연을 신격화하고 죽은 자를 불러 미래를 묻거나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형태를 취한다. 샤면이 북을 치며 춤을 춘다. 먼발치에서 바라본 샤면의 춤사위는 단조로운 듯 웅장했다. 춤사위가 멈추자 사람들이 한 명씩 샤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물음을 던지고 샤면은 대답을 한다. 들리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렵잖이 짐작할 수 있었다. 물음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해매길 반복하는 삶의 길 위에서 누구나 그리워 기대고픈 '죽은 자' 한 명씩은 가슴에 담겨 있을 테니. 나 역시 종교는 없으나 일상의 이정표가 제자리를 맴돌 때면 나지막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곤 한다. 하늘에 이유를 묻고 싶은 날들이 갈이진다. 2019년과 너무도 다른 2020년을 보내며 사람들은 각각 섬이 돼 곳곳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삶의 이정표 앞에서 헤매기도 할 것이며 그림에도 길을 찾고 있을 것이다. 요즘 때때로 모닥불 앞에서 춤을 추는 샤면의 모습이 떠오른다. '마음의 잔가지' 무성한 날들, 없는 사람에게 없는 길을 묻고 싶은 날들이다. 그런데 그거 아닌가. 미래를 묻는 자에게 샤면은 대부분 '네가 믿고 있는 것들이 옳다. 흔들리지 말고 가라'라는 대답을 건넨다고 한다.

열린마당

주민자치위원을 아시나요



우은혜 제주시 도동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돼 공공 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다. 주민 참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체계로, 읍면동별로 15~35명씩 구성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지역문제나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계도하는 등 자치활동의 선도자 역할을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은 각각각층의 주민대표로서 지역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로서의 맡은 임무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나서 주민의 요구사항, 지역의 현안 문제 등을 토의하여 시, 도에 건의하는 등 행정과 주민간의 교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 하는데, 현직 주민자치위원은 당해 연도 4시간,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내 4시간의 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주민자치위원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지역경제 활력 시책 지속 발굴해 달라”

정책제안 창구 운영 주문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5일 도청에서 열린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총괄 조정협의회 회의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

최 부지사는 “분과협의회의 실무 TF회의 정례 개최 등 정책제안을 위한 창구를 상시 운영하라”며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강조.

이어 “협의체의 분과별 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 백광택기자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14~21일 '치매! 빠르게 알고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를 주제로 인식개선 거리캠페인을 전개. 캠페인은 41개 마을 기억지킴이

와 함께 14일 고성리 오일장을 시작으로 지역 내 상가 밀집지역·리사무소 등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조그집진 독려·치매 바르게 알기 릴레이 제공 등 방식으로 진행. 캠페인에 참여한 마을 기억지킴이는 “캠페인이 치매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영종기자

제주반도체 코스닥 상한가

○...비메모리반도체에 주력하는 제주반도체가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해 눈길.

제주주 본사를 이전한 제주반도체는 이날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장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결국 전 거래일 증가 3300원보다 30%(990원)상승한 429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장을 마무리.

도내 증권사 관계자는 “통신장비와 서버에 쓰이는 메모리반도체 수요증가가 주가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 고대모기자

사설

외국인 투자유치 저조, 아예 손 놓았나

제주도가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가 적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고도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6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도 외국인 투자 신고건수는 2047건이지만 실제 투자 건수는 335건에 46억81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외국인 투자는 약속 금액의 30%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0년 부동산영주권제도 도입 후 2013년까지 12개소에 30억 2906만 달러의 투자유치가 이뤄졌습니다. 2015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 147건에 13억 9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형

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3억1400만달러로 4년새 4분의 1토막 넘게 쪼그라 들었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투자유치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기존과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 위주의 투자유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신 IT·BT·전기차·화장품·블록체인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유치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민자유치지원본부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유치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사원치 않습니다.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투자유치의 결실들이 접두자 신고금액 147건에 13억 9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형

비상품 감골 대량 유통 적발... 강력 처벌을

대규모 비상품 감골 유통을 시도하던 선과장이 올해 처음 적발됐습니다. 추석대비 비상품 감골유통 단속 개시 직후인데다 물량은 작던 한해 전체 단속물량을 한참 초과해 큰 충격입니다. 반면 단속 물량 대비 과태료는 미미해 보다 강력한 처벌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달이온 극조생 감골을 강제 착색 후 유통을 시도하던 선과장을 적발했습니다. 시인 제보로 단속결과 약 5만6000kg의 비상품 극조생이 확인되었고, 미신고 선과장에다 품질검사원도 지정받지 않아 증거를 찼습니다. 추석 대목 문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제주산 감골을 먹여주는 행위로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대목을 감안할 때 유사사례 재발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번처럼 미등록 선과장이 음성적으로 비상품 감골을 대량 유통을 시도하면 행정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고, 감골 제값받기는 불

가능합니다. 결국 점차 지능화·대형화하는 비상품 유통행위에 특별한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단속된 비상품감골 물량이 서귀포시의 작년 단속하는 단속물량 4만5600kg(160건)을 1만kg 넘는 무려 5만6000kg에 이르지만 감골조레상 최고 500만원(단속물량 5000kg 이상) 과태료 부과에 그칩니다. 지난 1년 과태료 부과액 2200만원에 비해 때 물량으로만 작던 한해 한참 웃돌지만 과태료는 4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제주도는 현재 단속물량 5000kg 이상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감골 조레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중이지만 보다 더 엄한 처벌규정 삽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매년 농가와 행정이 감골 제값받기 노력을 수없이 외쳐도 일부 불지각 통을 시도하면 행정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고, 감골 제값받기는 불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인자 (향년 5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16일 남 권 강 창 호 아들 강 태 현 남 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전택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제주시청 3층 대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CGV

벨초 전문벨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